

선어록 해제 31 한국선과 선어록 2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1>

무엇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학승이 물었다.
“범(凡)에도 있지 않으며 성(聖)에도 있지 않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 두 가지를 없애고 온다면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학승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 인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여기에서라면 네게서 일어나지만 거리에서라면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학승이 말했다.
“화상께서 어찌 정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가르쳐주지. ‘오늘 좋은 바람이 분다’고 왜 말하지 못하는가?”

問 不在凡不在聖 如何免得兩頭路
師云 去卻兩頭來答你
僧不審
師云 不審從什麼處起 在者裡時從老僧起 在市裡時從什麼處起
云 和尚爲什麼不定
師云 我教你何不道今日好風

“여기에 둘 수는 없어.”
학승이 말했다.
“만약 여기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장차 데리고 갈 것이다.”

問 大無慙愧底人 什麼處著得
師云 此間著不得
云 忽然出頭爭向
師云 將取去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은 최상의 진리이다. 그런데 이 진리에 심취하다 보면 계율·질서도 필요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생각이다. 그러나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만일 어떤 약속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회는 매우 혼란하게 될 것이다. 국법은 진리가 아니다. 법률을 따르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편리를 위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마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실천만이 필요하다. 알았으면 바로 행할 뿐이다. 욕심을 내지 않아도 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봉사를 해도 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중생을 제도했어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착한 일을 했어도 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참된 수행이다.

이렇게 끝없이 사용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눈을 끔벼거릴 줄은 안다. 그것을 무엇이라 해야 하겠는가?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면 아직 초심자도 못된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고 말해도 틀린다. 손을 번쩍 들어도 9만리나 빛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하겠는가?

학승이 물었다.
“공경(空劫) 중에서도 도리어 수행이 있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공경이라고 하는가?”
학승이 말했다.
“무일물(無一物)이 그것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비로소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달리 무엇을 공경이라 하겠는가?”

問 空劫中還有人修行也無
師云 還什麼作空劫
云 無一物是
師云 者箇時稱修行 還什麼作空劫

공경은 지구가 멸진하고 한 동안 텅 빈 상태의 공간으로 있을 때를 말한다. 그 때에도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할까? 조주 스님은 공경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수행은 마음에 단 하나의 상념이나, 집착이나, 주의주장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나의 본성은 텅 빈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행은 다른 것이 아니다. 나의 본성에 회귀하는 행위이다.

불교적 수행은 곧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 이미 충만했음을 믿는 것이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갖고 있는 것을 버리고 비우는 것이다. 완전히 버려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어지면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던 것이 자신의 내부에 이미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모델이 바로 역대 선사(禪師)들이다.
선사가 되어도 계속 빈(空劫)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수행이 곧 공경이라고 말한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진리는 범성 다르지 않아 범부의 삶 만족하지 말고 성인의 삶 동경도 말아야 만물에 평등함이 곧 해탈

진실을 찾고 진실을 펼치는 사람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부끄러움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에서나 몸담아 있을 자격이 없다. 어느 곳이든 그런 사람이 갈 곳은 따로 정해져 있다. 조주 선사 역시 감당하기 힘든 후안무치들을 따로 두는 것에 찬성한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사용해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용하는 것은 없지 않으나 나타날 때는 누가 인가?”

問 用處不現時如何
師云 用即不無 現時難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닦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마음은 닦을 것이 없다.

진리를 찾는 사람은 범부의 삶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다고 성인의 삶을 동경하지도 말아야 한다. 진리는 평등하다. 범성(凡聖)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범성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학승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한 것은 이전에 한 말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온 사람이 되어 인사한 것이다. 학승은 선문답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라 채지 있게 조주 선사의 두 가지를 없애고 오라는 것에 부응한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조주 선사 앞에서라면 조주 선사 때문에 일어났지만, 거리에서라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겠는가? 조주 선사는 ‘바람[風]’ 때문이라고 말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아침’, 혹은 ‘좋은 저녁’이라고 인사한다. 바다에 가서 때로는 ‘좋은 바다’ 하고 인사할 수도 있다. 인사는 그 누구, 그 무엇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다. 범성은 물론이고 사물에게도 평등하게 인사하고 지낸다면 곧 범성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학승이 물었다.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두면 좋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幼)을 떠나 있음을 지칭한 것으로 구경의 뜻이고, 입(入)은 깨짐으로써 실재를 터득하는 것이다. 교(教)에 의거하여 이(理)를 닦아 이입(理入)하고 그 깨짐의 실천으로 행입(行入)하므로 이입(二入)이라 말한다. 그러나 실재는 무제(無際)를 실재로 삼고, 이입은 무입(無入)을 입으로 삼는다.

이므로 내행(內行)에는 곧 무상법과 무생행이 해당하고, 외화(外化)에는 곧 본각리와 입실제가 해당한다. 이처럼 내행과 외화의 두 가지 방식[二利]으로 만행을 갖추어 동일하게 진성을 도출하고 모두 진공을 따른다.

이런 까닭에 다섯째로 진성과 진공을 설명한다. 진여법은 모든 공덕과 더불어 모든 수행덕을 갖추고 본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여본성이라 말한다. 진성은 모든 명칭[名]과 형상[相]에 단절해 있으므로 진성공이라 말한다. 이 진성은 상을 떠나 있다는 것은 허망한 상을 떠나 있는 것이고 성을 떠나 있다는 것은 진성을 떠나 있는 것이다. 허망한 상을 떠나 있으므로 허망한 상이 공하고 진성을 떠나 있으므로 진성도 역시 공하다.

이처럼 진성에 의해 만행이 갖춰져야 여래장 곧 일미의 근원에 들어가는 까닭에 여섯째의 여래장은 진제와 속제가 둘이 아닌 일실(一實)의 법은 제불이 돌아가는 곳이다. 그래서 무량법과 일체행이 여래장에 귀입하지 않음이 없음을 설명한다.

이리하여 마음의 근원에 돌아가면 곧 무위가 된다. 무위이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때문에 여섯 가지 품을 설하여 대승을 섭수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모든 품 가운데 의문점을 해결하고 요의를 총지하여 잊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런 점에서 총지품이라 말한다.

이와 같이 <금강삼매경>에서 설한 내용은 무상법품에서 말하는 무상법, 무생행품에서 말하는 무집착행, 본각리품에서 말하는 본래성불의 자각, 입실제품에서 말하는 이입과 행입 곧 깨침과 깨침의 실천, 진성공품에서 말하는 공에 대한 실천, 여래장품에서 말하는 진제와 속제가 둘이 아닌 일실(一實)의 여래장으로서의 귀입, 총지품에서 말하는 일체의 의문점에 대한 해결과 문(文義)다라니의 터득 등이 모두 선수행의 행(行儀)과 관련돼 있다.

집착이 없고 분별이 없는 평등한 경지인 무소득(無所得)의 일미야말로 바로 <금강삼매경>의 종(宗)이고 요(要)이다.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금강삼매경론

조사선법이 해동에서 최초로 전승된 시기는 8세기 중반 중국 선종의 제4조 대의도신의 동산법문을 계승한 법랑에 의한다. 이로써 보면 원효(元曉: 617-686)는 해동에 전래된 선법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원효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미 다양한 경론에 대한 교학적인 연구를 통해 선사상 및 선수행과 관련된 다수의 선법이 천착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이다. 이것은 선어록과는 직접적으로 무관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이미 달마로부터 전수됐던 조사선법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전체적으로는 일미관행(一味觀行) 곧 여래장(如來藏)으로 귀입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일미관행이야말로 여래장을 터득하는 수행의 방식으로서 관(觀)은 공간적으로 논한 것으로 경(境)과 지(智)에 통하고, 행(行)은 시간적으로 논한 것으로 인(因)과 과(果)에 사무친다.

책의 7품은 모두 조사선의 수행 원리에 관한 것으로 곧 무분별을 설하는 무상법품, 망념이 없음을 설하는 무생행품, 본래성불의 도리를 드러내는 본각리품, 허상을 버리고 실재로 나아가는 입실제품, 진성과 진공에 근거해 일체수행을 설하는 진성공품, 이미 무량한 수행이 성취되어 있다고 설하는 여래장품, 모든 수행을 점검하는 총지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은 선수행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먼저 모든 분별상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때문에 첫째의 무상법품은 무상과 법의 두 가지 뜻을 드러낸 것으로 분별상이 없는 법을 관찰하는 것이다. 무상(無相)이란 곧 무상관(無相觀)으로서 모든 분별상을 타파하기 때문이다. 모든 분별상을 없앴더라도 관찰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 관찰하는 마음 때문에 본각을 모르게 되므로 관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없앤다. 이런 까닭에 둘째의 무생행품(無生行品)에서 보살은 관행이 성취될 경우 저절로 관심을 알아 순리로 수행되게 발생하는 유생의 심도 없고 무생의 심도 없으며 또한 유행도 없고 무행도 없다.

이처럼 행과 무생이 돼야 비야흐로 본각을 알게 된다. 본각에 의해 중생을 교화하여 본각의 이익을 터득하도록 하므로 셋째로 본각리품을 설명한다.

망상의 대몽에 젖어 있는 중생에 대해 보살은 관행을 닦아 무생법인을 터득하고서 중생은 본래 적정하여 그대로 본각인 줄을 통달하고, 일미의 침상에 누워 본각의 이익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이처럼 본각에 의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면 중생이 곧 허상으로부터 실재에 들어가는 까닭에 넷째로 입실제에 대하여 설명한다. 여기에서 실제(實際)란 허환(虛

‘금강삼매경론’은 조사선 수행 결집서 선수행의 기본은 모든 분별 여의는 것

경전연구회 경전강좌 안내

출가 스님들만의 공부모임인 불교경전연구회 아래와 같이 경전강좌를 개설합니다.

- 강 주 : 설우스님 ■ 경 전 : 금강경오가해
- 과 정 : 1년 ■ 모집인원 : 약간명
- 개 강 : 2011년 3월 17일(목) 오후 3시 첫강의
- 수 강 료 : 20만원 (6개월)
- 장 소 : 서울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불교경전연구회에 뜻을 함께 하는 조계종(비구, 비구니)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불교경전연구회에서 개설해 수많은 스님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해 온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회	고우큰스님	육조단경	제 5회	지안큰스님	대승기신론
제 2회	고우큰스님	선요	제 6회	통강큰스님	전등록
제 3회	헤거큰스님	유식삼십송	제 7회	통강큰스님	선문촬요
제 4회	무비큰스님	임제록	제 8회	설우큰스님	금강경오가해

나,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기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 계좌번호 : 우체국 102608-01-001671 (예금주 : 경전연구회)

♣ 문 의 : 회장 무각스님 011-9929-4457 / 총무 법정스님 010-7963-7070 / 재무 정담스님 010-9669-3917

불 교 경 전 연 구 회 회 장 무 각 합 장

태고 경남 전문강원 2기 학인 모집 안내

한국불교 태고종 경남교구 중무원에서 수행자는 누구나 한번 배워야 할 부처님의 영원한 가르침과 깨달음의 길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오묘한 진리의 전문 강원을 개설하여 학인 스님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과정

과 정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교양필수		초발심, 선문촬요	치문	서장	도서, 선요, 절요
특 강		각 분야 전문 강사 초빙 강의			

1. 교육시간 : 2학년 4학기
2. 수강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오후 5시까지
3. 응시자격 : 승려, 교임, 전법사, 타 종단 스님
4. 접수기간 : 불기 2555년 2월 1일~ 3월 8일까지
5. 구비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승려증 복사 (태고종도는 생략), 입학원서 (중무원 비치)
6. 수 강 료 : 한 학기 20만원 (교재비 별도), 우수한 학인은 장학금 지급됨.
7. 강 주 : 윤범 스님
8. 입학식 및 개강일 : 불기 2555년 3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원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남중무원

☎ 055)298-3634 / FAX 055)298-363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59-2(양덕로 119)현대오피스빌딩 1201호 (우편번호: 630-811)

태고 경남 전문 강원

강원장 조지현
교육원장 김석봉 합장